

요람에서부터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글_강미경(결핵연구원 기술협력과장)

■ 글살는 순서

1. 결핵예방접종사업의 시행배경에 대한 이해
2. 공공과 민간의 비지지접종 실태와 실시상의 어려움
3. 요람에서부터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공의료와 첫 대면의 중요성

출생아들이 처음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기는 대개 출생 후 1~2개월째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잠시 열어놓은 창문으로 바람 쏘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기여서 실로 엄청난 외출을 감행하는 셈이 된다. 한 여름에도 겹겹이 싸고 가족들의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보건소 문을 들어서 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그러나 이를 ‘늘상 하는 일’ 정도로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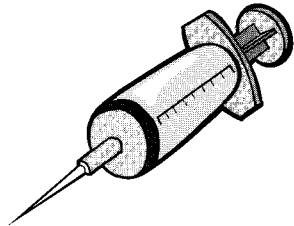
긴다면 우리는 효과적인 면역체계 부여를 위한 첫 번째 매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순간이 된다. 생각해 보자. 할머니,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아기의 건강, 예방접종에 대하여 이 정도로 집중된 관심과 주의력을 가지고 보건사업에 다가서는 순간이 언제 또 있겠는가? 어쩌면 그들의 전체 생애에서 이번이 첫 보건소 방문이었을 수도 있으며 베풀어지는 보건서비스의 만족도에 따라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과 우리 보건요원의 첫 대면이 이와 같이 최고의 관심을 모으며 보호자나 대리인의 학습을 통해 요람에서부터 건강한 삶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에, 그리고 그들 보호자나 대리인 자신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2세의 출발이기에, 보호자들은 가장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기대하고 있

음은 물론 어떤 보건교육 내용이라도 그대로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보건요원들은 2세를 위한 20대, 30대, 50대 보호자의 첫 보건소 방문시에 그들이 목적인 예방접종에서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이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로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선 첫 방문시 목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도 중요하겠으나 전체적인 기본예방접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사업이 갖고 있는 면역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과 효율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보건교육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한다. 즉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예방은 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인구군 확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이해시키고 신뢰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 때의 정보수집에 대한 집중력과 습득력이 가장 높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설명시간이 15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대상이 바뀔 때마다 반복 시행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리플렛 등을 주어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신뢰감과 흥미를 형성

이렇게 동기조성을 한 후, 예방접종 받는 아기만을 위해 준비된 최고의 환경(알록달록 예쁘지 않은 방이어도, 제리나 톰의 그림이 없어도, 미끄럼틀이나 볼풀이 없어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결핵환자나 콜록거리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전화벨소리가 소란스럽지 않은, 커피잔이나 냄비 등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모든 이의 관심이 아기의 접종에만 쏠릴 수 있는 환경이다. 현재와 같은 보건소의 여건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개선되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여기에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의 보건요원이 아기와 보호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맞으며 친절하고도 관심 어린 목소리로 “지난번에 맞히신 비시지접종은 잘 되었나요? 어디 한번 볼까요?”하며 예방접종을 모니터링하고, 준비한다면 보호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우리의 보건사업이 미덥겠는가? 정성스런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도 바로 다음 접종자에게로 관심을 돌릴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주고, 언제든지 의문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사후관계를 형성할 때 또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아마도 보호자들은 예방접종 외에 보건소의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20대, 30대, 50대 생애주기별로 준비된 보건교육 자료를 그들의 요구에 맞게 적용하게 되고 그 자료의 활용가치는 역지로 읽혀지는 진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관계맺기

지난호에 설명한 바와 같이 비시지접종 후에는 소속 림프절이 비대되어 드물게 화농하는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치 않아서 내버려두고 관찰하도

록 세계보건기구 자료에도 소개하고 있다. 화농한 림프절염은 자연 배농되거나 주사기에 의한 배농치료로 잘 치유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과에 대한 보호자들의 이해와 보건소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병·의원에서 조기수술이 행해져서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예방접종시 사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보호자가 비시지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과 경과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보건소에 문의하여 적절한 상담을 받고 간단한 처치를 했을 것이다.

비시지접종에 의한 림프절염은 발생부위나 시기 등이 접종과 관련이 있어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열이 나고 아기가 보채는 등의 증상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처치 곤란하거나 위급한 상황으로 진전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한 병·의원에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처음 경험하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염려스럽고 불안한 마음일 것이다. 따라서 보건요원은 이상반응의 경과와 보호자의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여 발생 초기 상담에서 보호자를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실제 이상반응의 상황보다 보호자의 심정적인 불안함이 몇배 크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접근해도, 또는 너무 심하게 받아 들여도 신뢰관계 만들기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염려와 불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한 뒤 차분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앞으로의 경과와 치료의 불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상반응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함께 관찰하며 치료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고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를 주어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 때 이상반응과 관련된 아기의 정보와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기록(이상반응 발생대장)으로 남겨 두는 것도 잊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처음 발견된 이후 2~3개월 사이에 자연 배농되거나 배농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2주 간격으로 먼저 전화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보호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정신과적인 소견사유(1) 보(배)농(放)사유

나는 보건사업은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보건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주민이 요청이 있기 전에 보건분야의 활동이 먼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이다. 양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강요하다시피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도 “정상이면 연락이 안 갑니다”며 주민의 요청이 있어야 결과를 알려주던 과거의 방식에서 이제 탈피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내소하더라도 지난번 예방접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다음 예방접종계획, 육아, 건강습관 등 그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보건활동으로 접근하여 통합 보건사업의 효과를 높여가야 한다.

또한 보건요원의 역할은 일반 국민,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 생활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요원들이 제공하는 건강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뢰는 보건교육이나 활동의 내용보다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관심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첫 접근인 요람에서부터 최상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가 예방접종사업의 발전은 물론 우리 보건요원의 역할에 대한 가치와 긍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